

있는 그대로의 인간 위한 일상 탈출

프랑스와 모리악의 「페레즈 데게루」

장 아제베도—

독문 번역에 능통했던 전해린이 그녀의 글 속에 남긴 의문의 편지 수신인 이름이다. 멋있다고 여겼었다. 나는 소녀적 감수성으로 단숨에 내 모든 현실과 상상을 지배하는 대상의 상징적 이름으로 그를 못박았었다. 바로 그녀의 동생인 전채린이 번역한 「페레즈 데게루」라는 소설 속에서 장 아제베도라는 낯익은 이름의 시원을 발견해내고는 색다른 기쁨을 느꼈다. 소설 속 장 아제베도는 상황에 얽매인 존재인 주인공 페레즈의 격정과 절망감을 동시에 유발시키는 자각의 모티브가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페레즈와 장의 아주 그럴싸한 낭만적 이야기 전개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장은 일상의 범주에 갇혀 모든 지적인 욕구를 스스로 멀찌감치 페레즈에게 가해지는 충격, 그 자체일 뿐이었다. 때로는 그것이 전부가 되기도 하는. 실제로 모리악이 속편으로 집필한 「밤의 종말」에서는 장의 이름은 그다지 언급되지 않는다.

이 소설의 주요인물은 물론 페레즈와 장, 그리고 페레즈의 남편인 베르나르 데게루와 시누이이자 친구인 안느 등이다. 이들은 서로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며 각자의 프락시스에서 표출되는 심리적 갈등의 전개로 그 긴장감을 더해간다. 책임기를 싫어하고 재봉과 재질거리기와 웃는 것만을 좋아하는 안느는 짜여진 생활에 적응하기 쉬운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에 반해 똑똑하고 순수한 페레즈는 안느의 오빠인 베르나르와 결혼한다. 이 결혼으로 결정적인 제자리 찾기에 조급했던 페레즈는 일종의 피난처와 함께 무감각을 얻은 셈이었다. 남편 베르나르는 단순한 사람들의 가치없고 맹목적인 특성을 유감없이 지닌 인물이었다. 그와의 결혼 생활에서 철저한 고립과 권태, 일상 이외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페레즈는 우연히 장 아제베도를 만나 변화하게 된다. 장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다른 세계로의 열망을 지니게 되었다. 즉 갈망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 인식과 이해만을 원하는 인간들—장이 깊은 만족감으로 말하던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 되고자 원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꿈꾸게 된 것이다. 하여 페레즈는 반쯤의 의식을 거둔 상태에서 남편을 독살시키려는 매력적인(?) 행동을 한다. 참을 수 없는 일상에서의 탈출시도이다. 그 시도는 곧 발각된다. 법정에서 서게 되지만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유평생활이 시작된다. 언젠가 트라브루인이 페레즈에게 했던 말처럼

자기를 갉아먹는 페레즈—그것도 순전히 고통만으로 페레즈 역시 가정적인 여자의 삶을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이 소설의 끝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페레즈의 떠나는 모습’이다.

프랑스와 모리악은 떠나는 페레즈가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러점에서 나와 정반대의 인물, 그러나 내 속에서 극복해야 할, 회피해야 할, 혹은 잊어야 할 그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인물”이라고 페레즈를 얘기했다. 어쩌면 페레즈는 우리 모두에게 잠든, 아니면 깨어있는 ‘무엇’인지도 모른다. 인간으로서의 삶, 특히女子的 삶, 결혼의 의미, 일상성, 생활 안에서의 자아 등 명쾌히 단정지를 수 없는 여러가지 관심을 소설적 재미와 함께 찾을 수 있었다.

장의정

부산시 북구 덕천동 대진APT 255호

위기철의 「아홉살 인생」

위기철은 작은 作家다. 물론 이 말이 그의 물리적 작음이나 정신적 작음을 뜻하지 않는다. 단지 내게 있어서 작다는 말은 순수하다, 사랑스럽다는 말과 동의어라 할 수 있다. 내가 읽은 그의 글은 모두 콩트였다. 그래서 그를 생각하면 작다는 느낌이 함께 떠오르는 건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글은 짧다. 그리고 명료하다. 짧고 힘있는 글을 쓰려면 쉽지 않다. 그 글에 작가의 철학을 붙여넣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쉽지만 명료한 그의 삶의 길잡이를 그의 글 구석구석에서 찾을 수 있고 그 길잡이는 우리들의 삶에도 유효하다.

「아홉살 인생」은 동화같은 책이다. 속절없이 나이만 먹어 느끼는 일, 생각하는 일에는 서툰 채 단지 살피는 일에만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꺼지지 않는 순수의 불씨를 하나씩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어린시절을 돌아볼 만한 여유를 준다. 어린 시절의 작은 느낌 한 자락을 다시 찾아내어 천천히 되새겨보는 그런 여유 말이다.

지나치게 행복하지는 못해 아홉살에 이미 세상을 느껴버린 여민이가 이 책의 주인공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아홉살에 낱아빠진 이불 보따리, 자질구레한 살림살이와 함께 울

라갔던 가파른 세상의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삶을 여민이의 눈으로 해석하고 보여준다. 여민이의 산꼭대기는 울타리가 없다. 그리고 드러매틱하다. 만약 서른아홉 눈으로 그 풍경을 그렸더라면 어땠을까? 지나치게 참담하고 지나치게 비극적이지는 않았을까? 세상을 느끼긴 했지만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던 여민이의 산꼭대기 생활을 작가는 따뜻하고 잔잔하게 묘사한다.

엿혀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집’이 가지는 의미,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의 차이가 주는 슬픔, 어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가난’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여민이는 고민한다. 진실한 거짓말쟁이 신기종, 산동네 사람들의 상을 거꾸로 비추는 거울 토종할매, 오직 월급을 받으려고 제각제각 움직이는 ‘월급기계’ 담임 선생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골방철학자, 이해할 수 없지만 미워할 수도 없는 여자 아이 장우림, 풍덩이 영감, 검은 제비……. 많은 사람들, 많은 사연들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간 다.

이홉살은 끝났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듯이 여민이는 이제 더 자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생각할 나이가 되어버렸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여전히 미지수인 살아갈 날들을 눈앞에 둔 채 말이다.

이정임

마포구 중동 삼일신촌빌라 A-208

장편동화 「딸꼬마이」

이 책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장편동화이다. 한 시골마을이 농촌 근대화 과정에서 급속히 해체되어 가는 모습이 이 글의 전반적인 상황이다. 그러한 혼란과 변화과정에서 한 아이가 서 있다. 바로 딸꼬마이이다.

딸꼬마이는 남들보다 키가 작아서 붙여진 별명이다. 작은 키 때문에 놀림도 받지만 딸꼬마이는 그런데 개의치 않고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다.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의 농촌 모습이요 사람들은 세상의 밝은 희망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도시의 각박한 생활 속에서 잊고 지냈던 농촌정서가 짙게 배여 있다. 시골마을의 자연스런 풍경과 거기서 땅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농촌해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픈 시련들과 싸워나가는 모습은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던 선조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동화는 다른 동화에 비하여 무척 슬픈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일반적으로 동화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 즐거움을 주는 데 비하여 이 글은, 농촌현실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시골아이들의 현실과 삶을 잘 알게 해준다.

고등학교는커녕 중학교도 못 다니고 돈벌러 떠나야 했던 딸꼬마이의 언니와 오빠들, 열심히 농사를 짓건만 좌절해야만 했던 부모들, 그런 환경속에서 일찍 철드는 딸꼬마이.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정직하고 순박하다. 이러한 시골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의 이익만 쫓아 나쁜 짓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동화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한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승리로 귀결된다. 이것이 끝났다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기본이다. 지은이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이 글은 세상을 영악하게 살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물질적인 부를 주지는 못해도 세상을 진실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따스한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요즘의 도시아이들은 농촌을 모른다. 딱딱한 벽돌건물속에 갇혀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자연을 배우지 못한 까닭이다. 이렇게 편향된 정서로는 세상을 바로 보기가 어렵다. 농촌을 잊어가는 어른들도 잘 모르는 아이들도 한번씩 읽어보라고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황범주

마포구 아현2동 338

「PD는 마지막에 웃는다」

나는 서점에서 일하는 여직원이다. 나는 2층에서 외국어 서적과 정기간행물을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일주일마다 한번씩 1층에 신간 서적을 적으러 내려가기도 한다. 신간서적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일 또한 내 일인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해서 자연과학 문학 아동도서에서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책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이때인지라 담당분야 외에 꽤나 애착이 가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바이오투둠 감성리듬 지성리듬 모두 최하였음이 분명하리라. 작은 일에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기

분이 자꾸 가라앉는 것이 모든 의욕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날도 예전에는 일주일분의 신간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두시간이면 모든 일을 끝냈을 텐데 분류해 놓은 책은 줄어들 줄을 몰랐다. 수십 권의 책을 한자한자 끄적끄적 거리다가 그속에서 찾아낸 책이 바로 주철환씨의 「PD는 마지막에 웃는다」라는 이 책이다. 책의 제목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의 자족을 읽을 수 있는 묘한 뉘앙스를 받았으므로 한없이 제자리 걸음이기만 하던 내 일에 약간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한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참 여러가지가 필요하다.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람의 솔직한 독백, 애정관, 직업관, 인생관, 세계관 등등.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은 한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을 보여 주는 데 비교적 솔직하고, 또 그것이 독자에게 잔잔히 전해오는 정직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철환씨는 '선택하는 자의 고뇌'라는 부분에서 "만나자. 만나서 사랑하자"라 글 글을 맺으며 자신의 생활철학이 인간사랑임을 피력하고 있다. 이런 철학은 「그대 이름을 부르는 까닭」에도 잘 나타나 있다. 많은 부분에서 그의 인간관계, 직업관, 세계관 등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큰 흐름이 인간사랑임을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다.

또한 주철환씨의 직업관 저변에 깔려있는 또하나의 철학은 '성실함'이라는 덕목인 것 같다.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 날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는 힘든 작업 속에서도 주철환씨는 창조성은 곧 성실성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예전에는 나는 창조성이란 어느 순간 신이 그냥 던져주는 그런 것, 즉 영감에 의해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내가 웃고 넘기는 코미디 하나하나도 제작자의 성실한 창조성이 배어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바람처럼 자유롭게'라는 장에서는 글쓴이의 자유에 대한 철학이 아니라 행동철학을 읽을 수 있다. "길들여진 새는 모이를 줄 때마다 즐겁게 노래한다. 그는 숲을 본 일이 없으므로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는 날아 본 일이 없으므로 자신이 새인 줄도 모르고 마침내 죽어간다... 선택은 자유라는 말이 있지만 거꾸로 자유야말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자유는 자유 의지이자 자

유 행동이다.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함께 행동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쾌한 그의 자유론에서 그가 말하는 건강한 예술관, 성실한 창조성, 사랑이 흐르는 인생관이 모두 분리되지 않고 섞여서 하나의 삶속에 융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며 덤으로 하나 더 얻는 게 있다면 텔레비전을 올바르게 보는 법이다. 그는 텔레비전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시청자가 드라마와 현실 사이의 거리감을 익히게 하는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올바른 텔레비전은 올바른 시청자가 만든다고 말하며 시청자의 의식이 늘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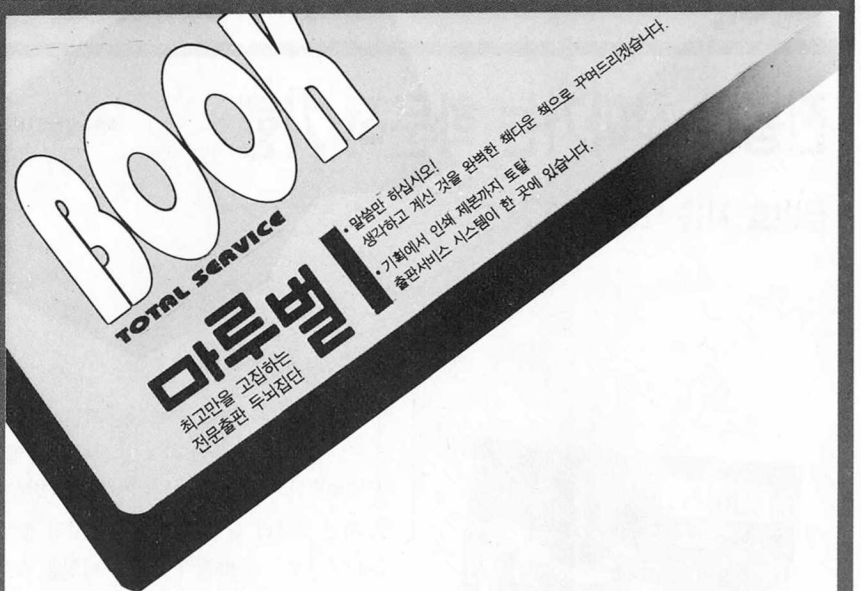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일하기 싫을 때 읽는 책', '공부하기 싫을 때 읽는 책'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있다. 나는 이 책을 뒀던 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일하기 싫을 때, 살기 싫을 때 한번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보길 권한다.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주위를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이진희

대구시 북구 칠성2가 2구 광명맨션 901호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년분(22호)·값 20,000원
전화문의: 732-1431~3



혼이 있는 책! 생명력 있는 책을 만듭니다.

"세련되기는 했는데 무언가 빠진 것 같다."
"편집이 엉성하군!"
"이거 교열을 맡겼더니 엉뚱한 내용으로 바꿔 버렸구만... 허허..."
"왜 오자가 이렇게 많아!"
"식자가 왜 이래? 떡을 찼군!"
"언제 끝납니까? 원고가 넘어간지가 벌써 언젠니까? 이래서 일할 수 있겠어요!"
"인쇄가 왜 이래... 화장 잘못된 여자 같군!"

책 만드는 현장에서 흔히 듣게되는 창피하고 답답한 이야기들입니다.

- 저희 기획·편집·식자·인쇄·제작 전문집단 마루벌은 최소한 이러한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달라'라는 말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 저희는 그것을 전문성과 오랜 경험, 그리고 정성의 결합에서 나온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바로 저희 마루벌에 있습니다. 그것은 출판·홍보·광고 기획, 편집, 운문, 교열·교정, 디자인, 식자, 출판, 재판, 인쇄, 코팅, 채본에 이르기까지 저희 마루벌은 전문성과 감각, 정확성과 함께 혼을 불어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한 정신으로 단행본, 사보, 잡지, 광고 등 인쇄매체에 관련한 장르에 관계없이 완벽한 최첨단 시설과 전문인력으로 생명력 있는 제3의 창조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혼이 있는 프로의 세계와 만나 보십시오!

전문 두뇌 집단「마루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일관 출판 시스템! 신속하고 확실한 만족을 드립니다.

☎ 문의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제작한 서체견본집을 드립니다.

- 디자인/표지·분문·광고·카타로그 등 마케팅전략에 의한 감각적·차별적 디자인!
- 편집/단행본·사보·잡지의 세밀한 편집!
- 운문·교열·교정/완벽한 문장구성·충실한 내용 재현을 위한 제 3의 창조!
- 식자·출력/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매킨토시 원색 출력서비스
- 재판/최신 설비에 의한 단색·원색 재판!
- 인쇄/예술성 있는 완벽한 색의 재현·고품질 인쇄!
- 제작/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세심한 코팅·제본!
- 기획/원고 기획·마케팅·편집계획·광고 등 종합 컨설턴트!

종합출판서비스

마루벌

매킨토시 전문 업체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 701-2391(대표)
FAX: 701-2395